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修辭學的 經典解釋*

— 『孟子古義』를 중심으로

柳旻定**

- | | |
|--------------------------|----------------------------|
| I. 서론 | III. 『孟子古義』의 수사학적 해석과 그 특징 |
| II. 이토 진사이의 문학과 경전 해석 방법 | IV.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의 『孟子古義』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경학의 한 방법으로서 수사학적 경전 해석의 보편성을 究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란 ‘글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경문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어휘 배열, 문장 구조, 표현 기교 등을 注解한다’는 의미를 지향한다. 철학이나 문학을 막론하고 유학자라면 경전을 글쓰기의 모범으로 삼았으며, 이토 진사이 또한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토 진사이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은 그의 경학관이 갖는 특징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맹자』의 수사법을 『논어』의 수사법과 연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경문의 문세를 근거로 주희 등 다른 경학가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맥을 통해 ‘古義[공맹의 본의]’를 밝혀야 한다는 저술 목적 또한 그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에

* 본고는 2022년도 1월 7일 “제2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호남사범대 동북아연구중심 공동 국제 학술회의의 「한·중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는 中國博士後科學基金會“博士後國際學術交流項目”(과제번호: XWH6283103)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다.

** 中國 浙江大學 歷史學院 講師

반영되었다. 어법이나 어세보다도 ‘어의’를 많이 언급하였으며, 표현 기교나 문장 구조가 주는 심미적 감상평이 드물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일본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에서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는 기초 성격을 띤다. 맹자가 사용한 요약법이나 비유법 등을 강조하며 설명하였지만, 괄진법이나 정보대기법 등 고차원의 수사법을 논하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토 진사이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의 경전 해석은 후대 일본 경학가들의 문의 중심 경전 읽기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그 결과 히로세 탄소의 『독맹자』 등과 같이 수사학적 접근이 전문화된 형태의 주석서가 등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주제어 : 이토 진사이, 『孟子古義』, 수사학적 경전 해석, 文本于經

I. 서론

동아시아의 전근대 학술장은 지금의 분과학문과 달리 文史哲이라는 통합적 사유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이에 경전 해석에 뛰어난 학자들은 經學家는 물론 文人으로서도 명성을 얻었고 실제로 뛰어난 작품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중국의 주희나 한국의 이황만 하더라도 빼어난 한시 작가였다. 이를 감안하면 그들이 경전을 해석하는 데 문학이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쳤고, 문학적 사유가 경전 해석에서의 학술적 상상력과 참신한 해석 방법에 자양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¹⁾

하지만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경학과 문학을 연계한 영역에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가령 경학 분야에서는 ‘성리학과 고증학’이라는 이분법으로 인해, 경문의 어휘 배열이나 문장 구조, 표현 기교 등을 논하는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 오래전부터 경학의 한 방법으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다수였다.²⁾ 경전과 문학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양자 간의 조화 내지는 융합의 형태인 수사학적 경전 해석에 대한 논의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국내와 달리 영미권과 중화권에서는 ‘수사학’을 경학의 한 접근 방법으로 인정하고, 연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³⁾ 다만 이러한 선행 연구에는 미비점도

1) 주희와 이황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은 다음을 참고. 졸고,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021.

2) 본고에서 지칭하는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란 ‘글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경문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어휘 배열이나 문장 구조, 표현 기교 등을 注解한다’는 의미를 지향한다. 여기서 ‘수사’란 어휘나 문장에 대한 ‘美辭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독자를 설득하는 論辨의 기술까지 함께 포괄한다. 수사학은 서구의 레토리케(Rhêtorikê)를 근대에 한자로 번역한 단어이다. 오늘날 수사의 사전적 정의는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술’(이기문, 『동아 새국어 사전』, 두산동아, 1995, 1217면)로 대개 말이나 글에 대한 예술적 지향에 그 의미를 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레토리케의 전통적인 개념과도 거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본래 동양에서 쓰이던 수사라는 단어의 개념과도 괴리가 있다. 전통적으로 레토리케에는 설득의 개념이 중시되었으며, 수사에 담긴 중국 고대의 의미는 ‘말이나 글을 아름답게 다듬는 일’ 외에도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일’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동양 전통적 개념의 수사학은 다음을 참조. 김월희, 「말 닦기와 뜻 세우기(修辭立其誠): 고대 중국인의 수사 담론과 그 저변」, 『한국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한국수사학회, 2005, 1~10면; 김현, 「레토리케(Rhêtorikê)는 ‘수사학’(修辭學)인가?」,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한국수사학회, 2004, 1~11면; 정우봉, 「한국 수사학사에 있어 수사 담론과 그 맥락」,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109~132면.

있다. 첫째, 사례 연구가 『시경』에 집중되어 있다.⁴⁾ 둘째, 한국과 중국 양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사례를 연구한 경우는 더러 존재하나,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극히 드물다.⁵⁾

경문의 문장 요소에 초점을 둔 수사학적 해석은 사서삼경 등 여러 경전을 관통하는 경전 해석의 한 방법이지만, 다른 경전보다 『맹자』의 사례는 더 큰 의의를 지닌다. 『맹자』는 호흡이 긴 장문이며, 논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문장의 묘미가 남다르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학문장에서 『맹자』는 사상의 전범은 물론 주요 문장 교과서로 종종 간주되어 왔다.⁶⁾ 다양한 수사 기교도 포함하고 있어, 주희나 이황 등도 어휘 배열과 문장 구조, 표현 기술 등을 경문 이해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하였다.

-
- 3) 대부분의 경전 주석서는 일정 정도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경전 해석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의 체계성과 지향성 등을 갖추어야 수사학적 경전 해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미뤄두고, 본고에서는 우선 수사학적 경전 해석과 수사학적인 접근을 서로 변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수사학적 경전 해석과 관련하여 영미권의 대표적 연구는 Li, Wai-ye, 『The Readability of the Past in Early Chinese Historiography』,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31~33면; Denecke, Wiebke, 『The Dynamics of Masters Literature: Early Chinese Thought from Confucius to Han Feizi』,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 326~347면. 중화권의 대표적 연구는 龔鵬程, 『六經皆文: 經學史/文學史』, 臺北: 臺灣學生書局有限公司, 2008; 張伯偉, 「東亞視野下的經學與文學: 以『孟子』在中韓歷史上的影響為中心」,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36~43면. 그 외 수사학적 경전 해석의 국내외 선행연구는 다음을 참고. 줄고,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맹자』 주석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20~24면.
- 4) 수사학적 『시경』 해석의 연구는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대표적 연구로는 劉鵬慶, 『從經學到文學: 明代『詩經』學史論』, 北京: 商務印書館, 2001; 朱孟庭, 『清代詩經的文學闡釋』, 臺北: 文津出版社, 2007; 張洪海, 『『詩經』評點史』,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2018.
- 5) You Min Jung(2018)은 수사학적 경전 해석의 심화 형태인 히로세 탄소(広瀬淡窓, 1782~1856)의 『讀孟子』를 중국과 한국의 사례와 비교 연구 하였다. 줄고, 「New Trends in Commentaries on the Confucian Classics-Characteristics,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of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of the Mengzi」, 『ACTA KOREANA』 21.2, CrossRef., 2018.
- 6) 蔣伯潛·蔣祖怡(2011)는 “『논어』와 『맹자』는 똑같이 성현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지만, 문장의 체제와 풍격은 같지 않다. 『논어』는 간략하고 질박한 기술인데 비해, 『맹자』는 기세가 웅장하고 규모가 크며, 정세가 급격하고도 복잡하게 변화하는 장편의 의론이다 …… 따라서 『맹자』를 숙독하면 문장 방면, 특히 의론문 방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蔣伯潛·蔣祖怡, 『經與經學』, 北京: 九州出版社, 2011, 213면.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는 일본을 대표하는 철학가이면서도 문학에 관심을 보이며 상당량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는 고학파 대표 인물 세 명을 꼽으며 “야마가 소코는 武士道, 이토 진사이는 道德, 오규 소라이는 文章”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⁷⁾ 이토 진사이의 문학을 이노구치 아츠시(猪口篤志)는 “이토 진사이는 유학 사상의 영결이지만 시문을 잘 해서 한문학 사상에서도 주목할 인물이다.”고 평하였다.⁸⁾

이토 진사이는 『맹자』를 사상의 전범으로 삼고 도덕적 이해를 궁구하면서도, 경문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을 통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같은 고학파라고 하더라도 후대의 오규 소라이는 『맹자』에 비판적 입장을 지니며 주석서를 남기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⁹⁾ 이에 본고에서는 이토 진사이의 『孟子古義』에 수사학적 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중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의 전근대 학문장에서 또한 철학과 문학은 이질적인 장르가 아닌 융합의 형태로 공존하였으며, 나아가 의리와 고증 외에도 ‘수사’ 또한 경학의 한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였음을 究明하고자 한다.¹⁰⁾

7) 井上哲次郎 著・王起 譯, 『日本古學派之哲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79면.

8) 이노구치 아츠시는 이토 진사이의 문체를 “그의 시문은 思致가 확실하고 辭理가 평온하며, 繁文을 일삼은 일이 없었다.”라고 평하였다. 이토 진사이의 문학은 다음을 참고. 이노구치 아츠시 著・심경호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312~314면.

9)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맹자관 차이는 다음을 참고. 원용준, 「이토 진사이의 맹자관에 대한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61, 동양철학연구회, 2010, 133~47면.

10) 송대 程頤(1033~1107) 등에 따르면 전근대 학술장은 대개 “義理・訓詁・詞章” 세 분과로 나뉜다. 이를 보면 전근대 지식인들은 사장이라는 영역을 훈고와 다른 독립적인 학술분과로 간주하였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사장은 오늘날의 문학에 해당되며 수사학은 사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 경전 해석의 방법론을 논할 때, 사장을 훈고에 포함하여 훈고와 의리라는 이분법으로만 나누는 것은 의문을 야기한다. 이에 필자는 사장에 해당하는 ‘수사학적 경전 해석’을 경학사 상에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물론 경학 상에서 수사(사장)가 훈고와 의리와 대등할 정도의 영향력을 지녔는가의 이슈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소 문제만으로는 그 경학 방법상의 위상을 논할 수 없으며, 경전도 하나의 글이자 문장의 전범이고 수사학적 접근은 어떤 경전을 선택하든 경문 읽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녔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의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Ⅱ. 이토 진사이의 문학관과 경전 해석 방법

1. 文本于經의 문학관

유학의 보편적 문학관 중 하나는 “경전을 글쓰기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劉勰(465~521)의 『文心雕龍』은 “文本于經”이라고 칭하였다. 『맹자』를 예로 들면, 유협은 「제자」편에서 『맹자』의 문학성을 칭송하며 “이치가 깊고 표현은 전아하다”고 평하였다.¹¹⁾ 주희 또한 맹자를 최고의 문장가로 꼽았다.¹²⁾ 이 외에도 『맹자』의 문장은 文章選本에 실렸는데, 중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宋代 張鑑(1153~?)의 『仕學規範』과 清代 曾國藩(1811~1872)의 『經史百家雜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문본우경의 문학관은 일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¹³⁾ 일본 전근대 학문장에서 유교 경전을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고, 그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물론 그 문체를 모방한 사례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¹⁴⁾ 그 중에서도 에도 시대는 일본 한문학의 전성기로 일컬어지며, 유학의 보편적 문학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 때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이토 진사이 또한 문본우경의 문학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는 『시경』 삼백 편에서 발생하였고 산문은 『상서』에 뿌리가 있다. 시는 뜻을 언어로 표현한 것[言志]이고 문은 도를 밝히는 것[明道]이라 그 쓰임새가 같지 않다. 시를 짓는 것은 진실로 괜찮으나 짓지 않아도 해가 되지 않는다. 산문의 경우는 반드시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가 아니면 뜻을 서술할 수 없고,

11) 『文心雕龍』 「諸子」, “研夫孟荀所述, 理懿而辭雅.”

12) 『朱子語類』 卷80, “讀『孟子』, 排推看它義理, 熟讀之, 便貼作實之法首尾照應, 血脈通貫, 語意反視, 明白峻潔, 無一字閑, 人若能如此作文, 便是第一等文章.”

13) 일본 한문학사는 다음을 참조. 이노구치 아츠시 著 · 심경호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14) 현존 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작품으로 쇼토쿠 태자의 17조 헌법이 있다. 그 문체상 특징을 오카다 마사유키(岡田正之)는 “육조의 폐습인 부화한 태가 없고 자구도 정련되고 조어도 간결 고고하며, 『시경』 · 『서경』 · 『논어』 · 『맹자』 · 『효경』 · 『좌전』 · 『예기』 · 『관자』 · 『목자』 · 『순자』 · 『한비자』 · 『사기』 · 『문선』 및 불서 등에서 널리 문사의 재료를 취하여 힘써 답습을 피하고 원문의 일부를 변화하여 ‘之’를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노구치 아츠시 著 · 심경호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35면 재인용.

문이 아니면 도를 전할 수 없으니, 배우면서도 문이 없으면 입이 있으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문은 詔·奏·論·說이 요체가 되며, 記·序·志·傳이 그 다음이다. 尺牘 종류는 문이라 할 수 없고 賦騷와 일체 戲作은 무익한 문자이므로 모두 지어서는 안 된다. 도에 크게 해가 된다. 葉水心이 “글쓰기가 세상 교화와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잘 썼더라도 무익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문장 쓰는 법도이자 글을 보는 척도이다.¹⁵⁾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시는 『시경』에서 산문은 『서경』에서 그 문체가 유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글에서 그는 “『시경』 삼백 편 이후 한나라와 위나라 즈음까지만 『시경』이 남긴 영향이 그나마 보존되어 있었을 뿐 그 후에는 오직 두보의 작품만이 거의 『시경』에 가깝다.”라고 하는 등 두보의 시가 훌륭한 이유는 『시경』과 가장 닮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¹⁶⁾ 글짓기는 유교 경전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의 시각이 엿보인다.

또한 이토 진사이의 위 인용문에서 글쓰기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움에는 반드시 글공부가 수반되어야 한다면, 글쓰기는 학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업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 보다 산문 쓰기를 더욱 중시하였으며,¹⁷⁾ 문체는 화려하지 않은 담박한 고문 스타일을 선호하였다.¹⁸⁾

고문에 대한 관심을 담아 이토 진사이의 『文式』이라는 문장선집을 남기기도 하였다. 『文式』의 서문에서 그는 문장 전범 목록에 『맹자』를 선두로 내세웠다.

15) 『童子問』 下 40章, “詩起於三百篇, 文本於『尚書』. 詩以言志, 文以明道, 其用不同. 詩作之固可, 不作亦無害. 若文, 必不可不作. 非言無以述志, 非文無以傳道, 學而無文, 猶有口而不能言 …… 文以詔奏論說爲要, 記序志傳次之. 尺牘之類, 不足爲文, 賦騷及一切間戲無益文字, 皆不可作. 甚害於道. 葉水心曰: ‘作文不關世教, 雖工無益.’ 此作文之律, 亦看文之繩尺也.”

16) 『童子問』 下 41章, “三百篇之後, 唯漢魏之際, 遺響尚存, 厥後唯杜少陵氏之作, 爲庶幾矣.”

17) 『童子問』 下 39章, “詩吟詠性情, 作之固好, 不作亦無害. 古人以六藝教人, 甚有意思. 人而無藝, 必不能成材, 其人亦可知矣. 『醫書』云: ‘五菓以爲輔, 然多食必有害. 詩雖藝中之雅翫, 然甚嗜焉, 則必有害. 若夫山林隱士, 遺世無營之徒, 聊咏懷抒情, 發其幽鬱無聊之心, 固可矣. 公卿將相學士大夫, 身有職務者, 苟溺心於詩, 則志荒業隳, 可戒.”

18) 『仁齋日札』, “觀人之文章, 當併見其至巧者, 與其至拙者. 不硯其至巧者, 則不知其力量之所造, 不觀其至拙者, 則不知其平生之力量. 韓之「原道」·「師說」, 是其力量之所造也, 「順宗實錄」, 是平生之力量也. 孝爲文者之所當識也.”

작문에는 유자의 글과 문인의 글이 있다. 유자의 글은 맹자, 순자, 동중서, 유협, 한유, 이백, 증공 등과 같은 부류이다. 문인의 글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조각하고 채색하는 것을 일삼아 경박하고 부화하여 예법에 맞는 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 예전에 우리 주문공은 일찍이 한유의 글을 본받았으며 또한 남 풍 증공과 후산 진사도의 문장을 매우 좋아하였으니, 어찌 그 體製가 올바르게 理意가 도달하여 법도에 딱 들어맞아 한 글자도 대충 쓰는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이를 통해 주문공의 글쓰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 이학을 좋아한다고 일컬어지는 자들은 문장을 짓는 것을 버려두고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물어 보면 우리의 학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한다. 오호라! 말이 아니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글이 아니면 그 말을 서술할 수 없으니, 독서를 하되 글짓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서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므로 공자가 “말로써 뜻을 드러내고, 문채로써 말을 수식한다. 말에 문채가 없으면 멀리 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오직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대체로 글쓰기에 무능하다. 대개 천하의 학문은 반드시 그 문을 얻은 뒤에 들어갈 수 있다.¹⁹⁾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문장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유학자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가의 글이다. 후자의 문체는 화려한 수사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장 전범으로 삼기 어렵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유학자의 글은 그렇지 않다며, 이토 진사이는 유학자의 글에 계보를 설정하고 맨 앞에 맹자를 내세웠다.

나아가 이토 진사이는 도학가도 당연히 글쓰기에 종사해야 한다고 피력하며 도학과 문학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언어의 達意 기능을 긍정하였으며 문장은 도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재라고 생각하였다.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대개 천하의 학문은 반드시 그 문을 얻은 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천하의 학문은 ‘유학의 도’를 가리킨다. 문장의 이치를 깨달은 후에야 유학의 도를 이해할

19) 『古學先生文集』卷1, 「文式序」, “作文, 有儒者之文, 有文人之文. 儒者之文者, 孟荀董劉, 韓李曾之類是已. 至於文人之文, 頗事瑣績, 輕剽浮華, 不足以登樽俎之間. 昔吾朱文公, 嘗校韓子書, 又深好南豐後山之文, 豈不以其體製之正, 理意之到, 而動循繩墨, 無一字之散緩乎. 然則文之爲文, 可見而已. 然世稱好理學者, 或棄去文字而不理, 問之, 云是不關吾學也. 嗚呼! 非言無以達其意, 非文無以述其言, 讀書而不能爲文, 奚以異乎其口而不能言者也. 故孔子曰: ‘言以足志, 文以足言, 言之無文, 行之不遠.’ 惟吾邦學者, 大抵無能爲文. 蓋天下之學, 必得其門而後入.”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토 진사이는 한유를 꼽았다.

주희의 글이 훌륭한 이유도 한유를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토 진사이는 주장하였다. 이에 그의 문장 선집 『문식』에도 한유의 글을 중심으로 실었다. 한유는 특히 『맹자』의 문체를 칭송하였으며, 그의 글은 『맹자』를 닮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²⁰⁾ 이를 통해 『맹자』는 이토 진사이의 문본우경의 문학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맹자』의 문체상 주요 특징을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천하에 귀한 말은 요약함에 이르러 최고가 된다. 도의 최고 경지에 이르고 자 하는 사람은 최상의 요점이 아니면 터득할 수 없다. 그러나 널리 배우지 않으면 상세히 설명할 수 없고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최상의 요점이 되는 말을 할 수 없다. 최상의 요점이 되는 말이 존재한 뒤에 도의 최고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며, 단지 널리 배우고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예컨대 맹자는 왕도를 논하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며 수없이 많은 변화를 일으켜 말을 꺼내고 또 꺼내어도 고갈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귀결처를 찾을 때는 역시 인이라는 한 글자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요약한다’고 한다. 후대 학자들은 걸핏하면 논란을 벌이고 글을 써서 자신의 설명을 더욱더 넓히고 싶어 하는데 참으로 도를 낮추는 게 아닌가.²¹⁾

『맹자』 수사법의 특징 중 하나는 상세한 설명이다. 자세한 설명은 좋지 않은 화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토 진사이는 이것이 문장의 핵심을 말하는 선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상세한 설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기 때문에, 맹자의 화법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다고 이토 진사이는 풀이하였다. 이를 통해 이토 진사이는 문본우경의 문학관

20) 蘭翠(2014)는 한유의 산문뿐만 아니라 詩歌도 『맹자』의 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蘭翠, 『唐代孟子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148~166면.

21) 『孟子古義』, “天下之言, 至於約而極矣. 蓋欲造道之極者, 非至約不能得之. 然非博學之, 則不能詳說之, 非詳說之, 則不能爲至約之言. 有至約之言, 而後道之極可造矣, 非徒博學詳說之爲至也. 若孟子之論王道, 橫說豎說, 千變萬化, 出之而愈不竭. 然而要其歸, 亦不出一仁字. 斯之謂說約. 後之學者, 動欲以言論著述, 益廣其說, 不亦左乎.” 『孟子古義』 번역은 다음을 참고. 이토 진사이 著, 최경열 譯, 『孟子古義』, 그린비, 2016.

을 지니고 있으며, 맹자의 문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았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文義 중심 경전 해석

이토 진사이의 경학은 도덕과 실천을 강조하고, 단어의 원시적 의미를 중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고찰한 바로는 이 외에도 문의, 즉 경전 본문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과 이해를 그는 강조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당대 학계의 학문 태도를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聖門의 학문은 도덕을 학문으로 삼았다. 오늘날 사람들이 도덕을 도덕으로 여기고 학문을 학문으로 여겨 선후본말을 분명히 나누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는 “안회라는 자는 학문을 좋아한다. 노여움을 옮기지 않았으며 과오를 두 번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성문은 도덕 수양을 곧 학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오늘날의 사람들은 배움에 관하여 너무 많은 갈래의 등급을 갖고 있다. 초반에는 오로지 문의를 밝히는 것을 배움의 주로 삼으며, 조금 나아가서는 의론[토론]을 배움의 주로 삼고, 다시 조금 나아가서는 오로지 문장[글짓기]을 배움의 주로 삼으며, 크게 나아가서는 특별히 도덕을 배움의 주로 삼고, 나머지 서너 가지 학문은 하찮게 여긴다. 고인의 배움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록 전일하게 도덕을 배움으로 삼더라도 문의와 의론, 그리고 문장을 버리고 강구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오로지 用意함이 이곳[도덕]에 있지 저곳[문장]에 있지 않다. 오로지 독서하고 의리를 강하고 밝히는 것을 배움으로 삼는 것은 진실로 어린아이의 학문이니 논할 필요가 없다.²²⁾

이토 진사이는 당대 학자들이 도덕 일방주의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좌선 등과 같은 심성 수양에 치중하고 의리를 중심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22) 『仁齋日札』, “聖門之學, 以道德爲學問. 非若今人之以道德爲道德, 以學問爲學問, 截然分先後本末也. 故孔子曰: ‘有顏回者好學, 不遷怒不貳過,’ 可見聖門以修道德便爲學問也. 蓋人之於學, 甚有等級. 初也, 唯以講明文義爲學, 少進焉則以議論爲學, 又漸進焉則專以文章爲學, 而大進焉則特以道德爲學, 不屑爲向數者焉. 若古人之學則不然. 雖專以道德爲學, 然非廢文義·議論·文章而不講, 唯用意在此而不在彼也. 若夫專以讀書講明義理爲學者, 實童子之學, 不足論也.”

경향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전을 해석할 때 문장의 맥락을 살핀다거나, 동료들과 경문 내용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거나, 글쓰기 실력을 배양하여 자신의 의론을 제기하는 등 논리적 사유나 문학적 수양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결핍되어 있다고 이토 진사이는 지적하였다.

이러한 당대 학계의 문제점은 ‘학문의 지나친 세분화’가 불러온 결과라고 이토 진사이는 분석하였다. 당시 일본 학자들은 도덕과 문의, 의론, 그리고 문장학 등을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학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 학술분과에서 배운 내용을 하나로 융합 내지 종합하지 않고 각각 따로 분리하여 학습하는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도덕이라는 한 영역에 치중하는 경향을 띤다고 이토 진사이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이토 진사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문의 중심의 경전 해석을 강조하였다.

도를 논하는 자는 마땅히 먼저 그 혈맥을 논한 뒤에 그 의미를 논해야 한다. 독서는 마땅히 그 문세를 먼저 살핀 뒤에 그 의리의 소재를 살펴야 한다. 대개 의미는 형체가 없어 어떻게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 의리 또한 그러하다. 그러나 혈맥과 문세는 일자 도로와 같아서 한 터럭의 착오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혈맥을 맞춘 후에 의미를 알 수 있으며, 문세를 합한 후에 의리를 변별할 수 있다. 『논어』에서 “回也. 其庶乎. 屢空.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이라고 하였다. 안자는 비록 단사표음도 풍족하지 않았으니 음식이 부족하여 자주 궁핍한 자와 비슷하였다는 말이다. 대개 가난하면서 즐거움을 바꾸지 않은 점을 찬미한 것이다. 구설에서는 “庶乎屢空”을 “도에 가까우며 또한 가난함을 편안히 여길 수 있다.[爲近道, 又能安貧]”고 풀이하였는데, 문세를 터득하지 못함이 심하다. 혹자는 “屢空”을 “마음속에 사심이 없음[虛中無我]”으로 풀이하였는데, 이는 노장의 종이지 성문의 학문이 아니며, 또한 혈맥을 알지 못한 것이 된다. 나아가 殖貨라고 말하지 않고 貨殖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살피면 재물 축적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재화가 저절로 늘어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문세를 살피면 저절로 알 수 있다.²³⁾

23) 『仁齋日札』, “論道者, 當先論其血脉而後其意味. 讀書當先觀其文勢, 而後其在義理. 蓋意味無形, 不知其合否如何. 義理亦然. 但血脉與文勢, 猶一條路子, 不容一毫差錯. 故合血脉而後意味得可知, 文勢而後義理可辨. 『語』曰: ‘回也. 其庶乎. 屢空, 賜不受命, 而貨殖焉. 億則屢中.’ 言顏子雖簞食瓢

이토 진사이는 의리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 해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형이상학적 담론은 형체가 없으므로 주석가의 주관이 투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혈맥과 문세는 경문에 새겨져 있는 불변의 실체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라고 그는 판단하였다. 텍스트 너머가 아닌 텍스트 내부에 경전 해석의 주요 근거가 담겨 있으므로, 경문의 文勢에 근거하여 의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때 그가 말하는 문세는 문장의 흐름, 즉 어휘배열이나 문장구조 등을 내함하는 文義를 가리킨다.²⁴⁾

이에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논어』 「선진」 18장을 예로 들며 문의를 근거로 세 가지 기존 경전 해석을 반박하였다. 첫째, 그는 “回也. 其庶乎, 屢空.”을 “안자가 屢空에 가깝다”고 해석하며 其庶乎와 屢空을 연결 구조로 파악하였고, ‘리’나 ‘도’ 등의 추상적인 단어를 자신의 해석에 추가하지 않았다.

그와 달리 주희는 “도에 가까우며 또한 가난함을 편안히 여길 수 있다.[爲近道, 又能安貧]”라고 해석하며, 기서호와 루공을 따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도’자를 추가하였다. ‘도’는 경문에 없는 단어라며, 이토 진사이는 주희가 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힐난하였다.

둘째, 何晏(193~249)은 루공의 “공”자를 무사심으로 해석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도를 알 수 없다고 풀이하였다.²⁵⁾ 이토 진사이는 하안이 도가의 관점으로 경문을 해석하여 유학의 중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논어』가 기본적으로 유학의 텍스트라는 점을 홀시하여 경문의 맥락을 잘못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주희는 “貨殖은 재화를 증식함이다.[貨殖, 貨財生殖也]”라고 하며, 빈부는 하늘에 달려 있는데 자공이 이를 어기고 의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였다고 비하하였

飲, 亦不饒, 近乎飯食不給, 屢空乏者也. 蓋美其貧而能不改其樂也. 舊說以‘庶乎屢空,’爲‘近道, 又能安貧,’尤不得文勢. 或以‘屢空,’爲‘虛中無我,’是老莊之旨, 非聖門之孝, 亦爲不知血脉也. 而觀其不言‘殖貨,’而言‘貨殖,’則知非豐財之謂, 而貨財自殖焉耳. 觀文勢自可見矣.”

24) 문의를 글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형식적·구조적 특징을 가리키는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문의를 터득한다는 것은 글에 대한 언어학적인 이해를 가리키며, 문의를 통해 경전을 해석한다는 것은 유교 경전을 어법, 어세, 그리고 어의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세 또한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문의와 그 의미를 구별하고 동양의 수사 삼 요소 중 하나인 어세에 포함하여 문장의 기운을 가리키는 의미로 한정하였다.

25) 『論語注疏』 卷11, “空, 猶虛中也. …… 不虛心, 不能知道.”

다.²⁶⁾ 그러나 이토 진사이는 경문에서 “殖貨”가 아닌 “貨殖”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하였다. 경문의 어휘배열을 주요 근거로 삼고 해석하면 재화가 자연스레 늘어난 것일 뿐이며, 자공을 비하하는 뉘앙스 또한 해당 경문에 담겨 있지 않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경문에 담긴 문학적 요소를 경문 해석의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자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개인적 사건이나 후대 주석에 의거하지 않고, 경전의 본문 그 자체를 숙독함으로써 공맹의 본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⁷⁾ 이는 주석가의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경문’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토 진사이의 先文義·後義理라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태도에서 출발하였다.

선문의·후의리의 해석 태도는 그의 다른 문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진심 상」 1장은 理를 통해 ‘心과 天, 그리고 性’을 연결하는 해석이 張載(1020~1077)로부터 시작되어 주희 이후 동아시아 주자학자들 사이에서 보편화되었다.²⁸⁾ 이를 이토 진사이는 “『맹자』라는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당연히 맹자의 말들을 가지고 서로 증명해야지 자기 뜻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 옛 해석에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 억지 견해이지 맹자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였다.²⁹⁾ 이를 통해 그의 문의 중심 경전 해석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6) 『四書章句集注』, 『論語集注』, “程子曰: ‘子貢之貨殖, 非若後人之豐財, 但此心未忘耳. 然此亦子貢少時事, 至聞性與天道, 則不爲此矣.’ 范氏曰: ‘…… 貧富在天, 而子貢以貨殖爲心, 則是不能安受天命矣. 其言而多中者, 億而已, 非窮理樂天者也.’”

27) 『童子問』 上 2章, “讀『論』·『孟』者, 若初學固不能去註腳而能曉本文. 苟集註章句, 既通之後, 悉棄去註腳, 特就正文, 熟讀詳味, 優遊佩服, 則其於孔孟之本旨, 猶大寐之頓寤, 自了然於心目之間矣. 今子所以不免致疑者, 皆爲註腳之所累耳. 天下之理, 到『語』·『孟』二書而盡矣. 無可復加焉. 勿疑.”

28) 「진심 상」 1장의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則知天矣.”에 대한 장재와 주자의 해석은 다음을 참조. 함영대, 「星湖學派의 盡心·知性·事天에 대한 해석-『孟子』「盡心」 上 1章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3, 한국동양철학회, 2010, 151~152면.

29) 『孟子古義』, “大凡欲讀『孟子』之書者, 當以孟子之言相證, 不可以己之意解之. 若舊解所說者, 皆臆度之見, 非孟子之本旨也.”

Ⅲ. 『孟子古義』의 수사학적 해석과 그 특징

1. 전반적인 특징

현재까지 『맹자고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그러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을 의리 및 훈고와 구별하며 별도의 해석방법론으로 『맹자고의』를 분석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토 진사이의 주요 경전 해석 태도는 무엇보다도 선문의 · 후의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문의에 근거한 해석은 『맹자고의』에 수사학적 경전 해석으로 구체화되었다.

필자가 살펴본 바, 어휘 배열이나 문장 구조 등 수사학적 요소를 언급한 경우를 『맹자고의』에서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주요 사례들을 고찰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그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맹자고의』에서 발견되는 수사학적 접근은 다음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 (ㄱ) 語法이나 語勢보다 ‘語義’를 더 많이 언급.³⁰⁾
- (ㄴ) 수사학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
- (ㄷ) 표현 기교나 문장 구조가 주는 심미적 효과나 好惡 등의 감상평이 매우 드물.
- (ㄹ) 수사학적 주석 또한 『論語』와 연관하여 논함.
- (ㄴ) 문장요소를 근거로 주희와 다른 견해를 제시.

다섯 가지 특징 중에서 (ㄱ) · (ㄴ) · (ㄷ)은 ‘Ⅲ. 2. 주요 사례’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장에

30) 전근대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문학 비평 용어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종류가 많지만, 그 성격에 따라 크게 ‘語義’ · ‘語法’ · ‘語勢’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語는 단어, 문장, 문단,篇章구조 등을 모두 포괄한다. 본고는 이 어의 · 어법 · 어세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에 대응하는 전근대 동아시아의 ‘수사 삼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어의에서의 ‘義’는 윤리 및 의미의 영역(ethos)에, 어법에서의 ‘法’은 논리 및 구조적 영역(logos)에, 어세에서의 ‘勢’는 감정 및 기운의 영역(pathos)에 속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수사 삼 요소는 각기 개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 한문 문장을 구성하기도 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의 · 어법 · 어세는 개별 요소로서 문장에 각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문장에서는 이 세 요소가 서로 맞물리고 어우러지며 文의 전체적 특징과 성격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수사 삼 요소는 다음을 참조. 졸고,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맹자』 주석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40~43면.

서는 (ㄹ)과 (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맹자』의 수사법을 『논어』의 수사법과 연결하였다. 「양혜왕 하」 16장 “노나라 평공이 외출하려는데 총애 받는 신하 장창이라는 자가 여쭙었다. …… 장씨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나를 임금과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魯平公將出, 嬖人臧倉者請曰 …… 臧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라는 구절에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성현의 탄생은 이 세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성현이 한 번 세상에 출현하면 말세라도 요순·하은주 삼대의 태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하늘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한다면 저 臧씨의 무리들이 어떻게 〈노평공을〉 막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장씨의 말이 실행된 것은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리고자 하지 않아서이다. 닥칠 게 무엇이 있는가. 천명을 아는 일은 학문의 최대 목표이니 활 쏘는 사람에게 과녁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도의 핵심을 총괄하여 말했는데, 이 장에 와서 특별히 하늘을 설명하는 말을 실은 것은 『論語』의 마지막에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실은 것과 같다. 매우 심오하다.³¹⁾

「양혜왕 하」 16장은 「양혜왕」편의 마지막 장이다. 이토 진사이는 천명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로 맹자의 유세가 왕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묵살되기도 하였다고 생각했다. 이에 왕도정치의 실현과 천명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혜왕」편의 첫 장은 왕도정치로 시작하고, 「양혜왕」편의 마지막 장은 천명으로 마무리했다고 이토 진사이는 분석하였다.

나아가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양혜왕」편의 편장구성은 『논어』와 유사점이 있다고 보았다. 「양혜왕」편의 마지막을 ‘천명’으로 끝맺은 것은 『논어』 마지막 편인 마지막 장(「요왈」 3장)에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不知命, 無以爲君子也]”는 말을 실은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주장이다. 『맹자』의 경우 천명을 알아야 왕도

31) 『孟子古義』, “聖賢之生, 關係甚大矣. 一出焉, 則雖叔季之世, 可以成唐虞三代之盛. 天苟欲平治天下, 則彼臧氏之徒, 豈得能行其沮乎. 今臧氏之說之行也, 是天未欲平治天下也. 何尤之有. 蓋知命者, 學問之極功, 猶射者之有的也. 故此篇自始至終, 總論王道之要, 而至此特載說天之言者, 『論語』篇末載不知命我無以爲君子之語也. 遂哉.”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양해왕」편의 마지막 장을 ‘천명’으로 끝맺었고, 『논어』의 경우에는 천명을 알아야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논어』 「요왈」편의 마지막 장을 ‘천명’으로 끝맺었다고 보았다. 편장구성에는 맹자의 수사적 의도가 있다는 이토 진사이의 시각이 돋보인다.

둘째, 이토 진사이는 『맹자』 경문의 문의를 근거로 주희의 주석이 옳고 그름을 따졌다. 「공손추 상」 2장 “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則塞于天地之間。”에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선배 유학자가 만든 ‘體段’의 설은 잘못되었다. 호연이라는 두 글자를 체단으로 설명하고 나면 ‘가장 강하다’고 다시 말할 수 없다. 호연이라는 말에는 역시 ‘성대하다’는 뜻만 있을 뿐, ‘가장 강하다’는 뜻은 발견할 수 없다. 또 앞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자연스레 서로 맞지 않는다. 〈호연지기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것인데 무슨 “말하기 어려운 게”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기를 기르는 방법을 말한 것임을 알겠다. 배우는 사람은 그 말 뜻을 보고 자연스레 깨달아야 한다.³²⁾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선배 유학자는 주희를 가리킨다. 주희는 경문의 “至大至剛”을 ‘體段(사물의 형상)’, 즉 호연지기의 형상과 그 특징을 맹자가 설명한 것이라고 풀이하었다.³³⁾ 주희의 해석을 따를 경우 해당 구절은 “氣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써 잘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이 浩然之氣가〉 天地 사이에 꽉 차게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주희의 이러한 주석은 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 실제로 경문 안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주희의 해석을 반대하며 이토 진사이는 “至大至剛”은 호연지기의 특성이 아닌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토 진사이의 해석에 따를 경우 해당 구절은 “그 氣는 가장 크고 가장 강함에 머무르는 것이니 조장함이

32) 『孟子古義』, “先儒做體段說, 可謂誤矣. 浩然二字, 既說體段, 不可復言至剛. 所謂浩然者, 亦唯有盛大之義, 而不見至剛之意. 且與前‘難言’者, 自不相合. 既是至大至剛, 何‘難言’之有. 故知是言養氣之法也. 學者見其名義, 自當知之.”

33) 『四書章句集注』, 『孟子集注』, “至大, 初無限量, 至剛, 不可屈撓. 蓋天地之正氣而人得以生者, 其體段, 本如是也. 惟其自反而縮, 則得其所養, 而又無所作爲以害之, 則其本體不虧而充塞無間矣.”

없이 〈기를〉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토 진사이는 문장의 흐름을 자신의 주장에 근거로 삼았다. 먼저 그는 앞 구절에서 호연지기의 특성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³⁴⁾ 곧바로 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浩然’의 함의를 논하며, 호연에 ‘가장 강하다[至剛]’라는 의미가 이미 담겨있는데, 같은 의미를 중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토 진사이가 주자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도, 문의를 주요 근거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동양의 수사 삼 요소인 ‘語義와 語法, 그리고 語勢’를 중심으로 『맹자고의』에 담긴 수사학적 해석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요 사례

1) 語義

『맹자고의』의 수사학적 주석은 대부분 어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어의는 의미적 요소로 글에 담긴 작가의 의도나 정서, 주장, 혹은 대화 배경 등을 포함한다. 즉, 어의는 사전적·문자적 의미에 대한 풀이가 아니라 그 문자나 문맥이 갖고 있는 함의를 가리킨다. 가령 수사법이나 뉘앙스를 통해 화자의 심리상태나 성격 또는 철학적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예이다. 본장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토 진사이의 어의 해석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경문의 수사법을 통해 이에 담긴 맹자의 의도를 파악한 사례이다. 「양혜왕 하」 6장 “맹자가 말하였다. ‘사방 나라 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좌우를 둘러보며 탄소리를 하였다.[曰: 四境之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에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나랏일은 그 책임이 본래 왕에게 있지 신하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맹자는 이것을 넘기지 일깨워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먼저 두 가지 일을 만들어 얘기한 것이다. 왕을 위하는 뜻이 참으로 깊고 간절하다 하겠다. 하지만 왕은 좌우를 둘러보며 탄소리를 하였으니, 맹자가 왕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 맹

34) 『孟子』, “敢問, 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자를 저버렸음을 알겠다.³⁵⁾

위 인용문에서 가리키는 두 가지 일은 ‘친구가 자신의 처자식을 홀대한 경우’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는 경우’이다. 이토 진사이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경문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맹자가 두 가지 경우를 설정하여 잘못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제선왕에게 질문하자, 제선왕은 모두 행동의 주체에 잘못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맹자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자, 제선왕은 선뜻 ‘왕’이라고 대답하지 못 하고 얼버무리며 판청을 부렸다.

해당 경문에서 맹자가 질문법과 가설법을 사용한 목적은 제선왕을 계몽시키는 것에 있다고 이토 진사이의 생각했다. 가설법을 통해 맹자 자신의 주장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질문법을 통해 제선왕 스스로의 판단을 유도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제선왕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왕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직설 화법 보다는 가설과 질문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이토 진사이의 주장하였다.³⁶⁾

둘째, 경문의 수사법을 통해 맹자의 심리를 파악한 사례이다. 「양혜왕 하」 15장 “왕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십시오.[君請擇於斯二者]”라는 구절을 이토 진사이의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맹자가 또 문공을 위해 한 가지 계책을 세워 준 것이다. 계획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도를 만들어 깨우쳐 준 것이다. 태왕의 일은 큰 덕의 극치이며, 어떤 사람의 말은 나라를 지키는 평범한 법도이다.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태왕의 일 같은 경우 큰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실행할 수 없다. 맹자는 태왕의 일을 문공에게 말했으니, 그에게

35) 『孟子古義』, “境內之事, 其責本在於王, 而不在臣下. 故孟子欲以此諷動之, 而先設上二事以發之. 其爲王之意, 誠爲深切. 而王顧左右而言他, 則見孟子不負王, 而王負孟子也.”

36) 이토 진사이의 이러한 해석은 주희의 해석과 同異가 있다. 주희는 해당 경문에 사용된 가설법을 언급하며 제선왕에게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은 이토 진사이와 유사하다. 반면 주희는 질문법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경문에서 사용된 수사법의 목적은 청자의 ‘계몽’에 있다는 풀이 또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토 진사이와 차이가 있다 『四書章句集注』, 『孟子集注』, “孟子將問此而先設上二事, 以發之, 及此而王不能答也. 其憚於自責, 恥於下問, 如此, 不足與有爲, 可知矣.”

바란 것이 깊다고 할 수 있다.³⁷⁾

해당 경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문공이 타국의 침입을 면하지 못하자, 맹자에게 해안을 물었다. 이에 맹자는 ‘자국을 떠났지만 백성을 지켰던 태왕의 방안’과 ‘떠나지 않았지만 백성을 지키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방안’ 두 가지를 등문공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훌륭한 정치를 시행하면 자연스레 침략은 멈출 것이고 백성들도 왕을 따를 것이라고 맹자는 조언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맹자가 ‘태왕의 계책’을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태왕은 큰 덕이 있는 사람이므로 용단을 실행할 수 있었고 아울러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등문공이 우매한 위정자라면 맹자는 태왕이 아닌 다른 사례를 예시로 들었을 것이라고 이토 진사이는 생각했다. 맹자는 등문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태왕의 일화를 언급하였다고 이토 진사이는 분석한 것이다. 맹자가 사용한 예시법에 등문공에 대한 맹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내포되어있다는 견해이다.

셋째, 『맹자』에 사용된 비유법을 통해 인간의 본성이 지닌 속성을 설명한 사례이다. 「이루 하」 18장 “서자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자주 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 그러므로 군자는 명성이 실제보다 큰 것을 부끄러워한다.’[徐子曰：仲尼亟稱於水曰 …… 故聲聞過情，君子恥之]”라는 구절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맹자의 말에는 언제나 흐르는 물에서 의미를 가져온 것이 있는데 바로 공자가 물에 대해 자주 언급한 뜻과 같다.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마음을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에 비유하고, 어떤 경우에는 양심이 생기는 것을 초목이 싹트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맹자는 “잘 기르면 어떤 생물도 자라지 않는 게 없다[苟得其養，無物不長]”(「고자 상」 8장)고 한 적이 있는데, 도를 논하고 덕을 논하며 마음을 논하고 학문을 논할 때 모두 이 구절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후대의 여러 유학자들이 혹 깨끗한 거울처럼 고요한 물을 성인의 마음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맹자는 “바다로 나아가 넘실거린

37) 『孟子古義』, “孟子又爲文公畫一策。蓋其謀不能決，而設此二端以曉之。大王之事，大德之至也，或人之說，守國之常法。或人之說，夫人可能之，至於大王之事，則非大德之人，不能行之。孟子以此告文公，其望之可謂深矣。”

다[進放乎海]”고 말하지 않고, “온 바다에서 넘실거린다[放乎四海]”라고 말하였다. 이는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塞于天地]”(「공손추 상」 2장)는 말과 같은 뜻이다. 확충하는 공적은 한계를 지을 수 없으며 그저 자신의 천성을 다하면 될 뿐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후세의 성리설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³⁸⁾

위 인용문에서 이토 진사이는 철학적 담론을 설명할 때 맹자가 사용한 ‘비유법’을 칭송하였다. 「공손추 상」 6장에서 ‘사단지심을 불에 타오르는 것에 비유한 경우[凡有四端於我者, 知皆拔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고자 상」 8장에서 ‘양심을 초목이 싹트는 것에 비유한 경우[孟子曰: 牛山之木 …… 莫知其鄉, 惟心之謂與],’³⁹⁾ 그리고 「이루 하」 18장에서 ‘성인의 마음을 물에 비유한 경우’이다.

이토 진사이는 맹자가 性을 흐르는 물[流水]에 비유한 것은 송대 程頤(1033~1107)가 성을 ‘고요한 물[止水]’⁴⁰⁾에 비유한 것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평하였다. ‘흐른다’는 것은 유동성을 함의하므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본성을 닦고 사단을 확충해서 인의예지를 실천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⁴¹⁾ 맹자가 비유법을 사용한 데에는 숨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기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정주학과 다른 풀이를 내놓은 이토 진사이의 해석이 돋보인다.

38) 『孟子古義』, “孟子之言, 每有取於流水, 即夫子亟稱於水之意也. 或以火之始然, 喻四端之心, 或以草木萌蘖, 喻良心之生. 嘗曰‘苟得其養, 無物不長’, 其論道論德, 論心論學, 皆莫不由是而出. 而後之諸儒, 或以明鏡止水, 喻聖人之心, 可謂謬矣. 且孟子不曰‘進放乎海’, 而必曰‘放乎四海’, 與所謂‘塞于天地’之間意同. 蓋言擴充之功, 不可限量, 不徒盡己之性分而已也. 非後世性理之說之所能盡也.”

39) 이토 진사이는 초목의 비유(「고자 상」 8장)를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孟子古義』, “此以山木之生, 喻人之良心. 前後照應, 句句比對, 無復可疑者. 蓋仁義之心存乎人, 山之有草木也. 放其良心者, 猶斧斤之伐木也. 日夜之息, 萌蘖之生也. 且晝之枯亡, 牛羊之牧食也. 但草木日夜之所息, 自得其養, 而人心則旦晝枯亡之害, 無時休歇. 所以人免於禽獸, 難於山之免濯濯. 故孟子反覆曉喻, 欲使人擴充其良心, 而先以枯亡戒也. 而諸家皆解平坦之氣, 作清明氣象. 其說出於老莊虛無之旨, 害道尤甚.”

40) 『宋元學案』 卷15, 「伊川學案」上, “曰: ‘赤子之心與聖人之心若何?’ 曰: ‘聖人之心, 如明鏡止水.’”; 『朱子語類』 卷97, 「程子之書」三, “曰: ‘不難訓和不得, 可以訓不純. 游定夫云‘不乖之謂和’, 却好.’ 又問: ‘赤子之心’處, 此是一篇大節目. 程先生云: ‘毫釐有異, 得爲大本乎?’ 看呂氏此處不特毫釐差, 乃大段差. 然毫釐差亦不得. 聖人之心如明鏡止水, 赤子之心如何比得?’ 曰: ‘未論聖人, 與叔之失, 却是認赤子之已發者皆爲未發.’ 曰: ‘固是如此. 然若論未發時, 衆人心亦不可與聖人同.’”

41) 이토 진사이와 주희의 성리설과 사단지심 등에 관한 해석 차이는 다음을 참조. 이기동, 「일본 유학의 기본 성격」, 『유학사상연구』 8, 한국유교학회, 1996, 641~644면.

2) 語法

『맹자』에서 활용된 어법은 매듭법, 괄진법, 가설법 등 다채로우며, 이토 진사이도 다양한 어법에 관심을 보였다. 여기서 말하는 어법은 구조적 요소로 辭令, 比喻, 文法 등 단어의 문법적인 쓰임, 비유법이나 대구법, 문장 혹은 문단의 구조 등을 가리킨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이토 진사이의 어법 해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맹자가 사용한 인용법을 분석한 사례이다. 「양혜왕 하」 3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작은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며 …… 〈『시경』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해 이에 나라를 보전한다’고 하였습니다.[以大事小者, 樂天者也 …… 畏天之威, 于時保之]”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시는 「주송 · 아장」편이다. 時는 ‘이것’이라는 말이다. 맹자는 이 시를 인용해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보전한 사건을 증명하였다. ○이 부분은 맹자가 옛날의 어진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일을 인용해 제나라 선왕 스스로 옛사람들의 이웃 사귀는 방법을 체득하도록 권한 것이다.⁴²⁾

『시경』 「주송 · 아장」편은 문왕을 명당에 제사하여 상제를 배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훌륭한 왕을 숭배하는 것은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므로, 왕은 하늘이 내린 복을 받고 나라를 보전할 수 있다는 논리 또한 갖고 있다. 이 까닭에 이토 진사이는 “이 시를 인용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보전한 일을 증명했다”고 말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맹자가 이러한 인용법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제선왕이 깨달음으로 자연스레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직설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인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맹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청자인 제선왕이 이웃 나라와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견해이다.⁴³⁾

둘째, 맹자가 사용한 비유법을 분석한 사례이다. 「이루 상」 2장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規矩는 직각과 원을 그리는 완벽한 도구이며 …… 요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42) 『孟子古義』, “詩, 「周頌 · 我將」之篇. 時, 是也. 孟子引之, 以證智者保國之事. ○此孟子引古昔仁者智者之事, 以勸宣王自體古人交鄰之道也.”

43) 위 사례 외에도 이토 진사이는 『맹자』 인용법의 목적은 대부분 청자 ‘스스로의 체득’ 또는 ‘사실을 증명’ 하는 데 있다고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孟子曰: 規矩方員之至也 …… 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 賊其民者也]'라는 구절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規矩라는 기구는 아주 가까이 있지만 장인들에게는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맹자는 이 물건을 요순의 도에 비유했으니 훌륭한 비유라 하겠다. 배우는 사람들이 이 뜻을 이해한다면 요순의 도는 높지도 낮지도 않은 실은 천하의 영원한 법칙임을 알게 될 것이다.⁴⁴⁾

해당 경문에서 맹자는 성인을 그림쇠[規矩]에 비유하며 양자의 공통점으로 '완벽성'을 꼽았다. 이토 진사이는 규구 비유의 탁월성에 찬사를 보내며 맹자가 제시한 완벽성 외에도 근접성과 불가결성이라는 두 가지 공통점을 규구와 성인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토 진사이는 규구와 성인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점에서 양자가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그는 학자들이 비유의 이러한 함의를 이해한다면 요순의 도 또한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토 진사이가 규구의 비유를 호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맹자의 다양한 수사법을 분석한 사례이다. 「양혜왕 하」 2장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은 …… 백성들이 크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齊宣王問曰: 文王之囿 …… 民以爲大, 不亦宜乎]”라는 구절에 대해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장은 맹자가 선왕의 질문을 이용해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문왕의 동산에 대해서는 존재 여부를 논하지 않고, 끝 베고 나무하며 꿩 잡고 토끼 잡는 일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만을 설명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왕을 심하게 책망하였다.⁴⁵⁾

44) 『孟子古義』, “規矩之器甚近, 而在匠人, 則爲一日不可廢之物. 孟子以此喻堯舜之道, 可謂善譬喻矣. 學者苟能達此義, 則知唯堯舜之道, 不高不卑, 實爲天下萬世之法則也.”

45) 『孟子古義』, “此章孟子欲因宣王之問以明王道. 故於文王之囿, 不論其有無, 唯說芻蕘雉兔之無禁, 而深責宣王之不然也.”

해당 경문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문왕의 동산이 70리나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규모의 동산이 존재했는가”라는 제선왕의 질문에 맹자는 묵언법을 사용하며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투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자신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제선왕은 “문왕 동산의 규모”를 다시 물으며 맹자에게 대답을 요청하였다. 맹자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문왕은 동산을 백성들과 함께 이용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도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반면, 제선왕의 동산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불평을 토로한다”고 알려주었다.

이토 진사이는 해당 경문에서 사용한 질문법, 묵언법, 그리고 화제선택법이라는 세 가지 수사법에 주목하였다. 맹자가 질문법과 묵언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제선왕이 하도록 유도한 뒤에, 나아가 왕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즉 진정한 왕이 되는 방법을 제선왕에게 전달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경문에 대한 수사학적 이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語勢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토 진사이 『맹자고의』에서 어세 분석은 소략한 편이다. 심미적 감상평이라는 뚜렷한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일면을 살핀다는 차원에서 본장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어세는 심미적 요소로 文勢, 口氣, 辭氣, 語勢, 氣勢, 文氣, 抑揚 등 문장의 기운과 이에 따른 감흥을 가리킨다.

첫째, 억양을 분석한 사례이다. 「양혜왕 상」 7장 “왕이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 …… 백성들에게 그물질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王曰: 吾慙 …… 罔民, 而可爲也]”라는 구절에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恒은 항상이라는 말이다. 産은 생업을 말한다. 恒産은 일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恒産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갖고 있는 선한 마음을 말한다. 辟은 僻[치우침]과 같은 뜻이다. 罔은 그물을 친다는 말로 보지 못하도록 속여 잡는 것이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한 것이다.⁴⁶⁾

46) 『孟子古義』, “恒, 常也. 産, 生業也. 恒産, 可常生之業也. 恒心, 人所常有之善心也. 辟, 與僻同. 罔, 猶羅網, 欺其不見而取之也. 甚言不可不反本也.”

해당 경문에서 맹자는 ‘그물질[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여기에 다소 강한 어투가 담겨 있다고 풀이하였다. 이 외 말투나 억양을 분석한 사례는 「양혜왕 상」 2장⁴⁷⁾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分章의 재조정이다.⁴⁸⁾ 「만장 상」 2장 “만장이 물었다. 『시경』에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그러므로 진실로 믿고서 기뻐하셨으니, 어찌 거짓이셨겠는가[萬章問曰: 詩云娶妻如之何 …… 故誠信而喜之, 奚僞焉]”라는 구절 말미에 이토 진사이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장은 옛 판본에는 다음 3장의 글과 이어져 한 장으로 되어 있다. 지금 文勢를 상세히 살펴보니 3장은 이 장과 의미는 동일하지만 뒷부분의 문장에서 따로 다른 단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누어 별개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앞뒤의 여러 장들과 각자 비슷한 종류대로 모아 두고 섞이지 않도록 하였다.⁴⁹⁾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옛 판본’은 주희의 『맹자집주』를 가리킨다. 『맹자집주』에는 「만장 상」 2장에 두 가지 일화, 즉 “순임금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장가를 간 일화[萬章問曰: 詩云娶妻如之何 …… 曰: 帝亦知告焉則不得妻也]”와 “순임금이 아우인 상에게 미움을 받은 일화[萬章曰: 父母使舜完廩捐階 …… 故誠信而喜之, 奚僞焉]”가 함께 실려 있다. 이토 진사이는 문장의 흐름에 따르면 이 두 일화는 나누어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토 진사이에 따르면 앞부분 ‘순임금이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장가를 간 일화’는 「만장 상」 2장이 되며, 뒷부분 ‘순임금이 형인 상에게 미움을 받은 일화’는 「만장 상」 3장이 된다. 따라서 주희 『맹자집주』의 「만장 상」은 ‘모두 9장’인 반면, 이토 진사이 『맹자고의』의 「만장 상」은 ‘모두 10장’으로 장절의 수가 서로 다르다. 이외에도 이토 진사이가 문장의 흐름에 따라 장이나 절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사례는 「공손추 상」 2장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⁵⁰⁾

47) 『孟子古義』, “此章詳述王道之明效. 故以此置之首章之次 …… 至親切矣. 當與下章齊宣王言者參看.”

48) 이 경우 문장의 기세를 이해하면서 얻어지는 결과이므로 어세의 사례에 포함하였다.

49) 『孟子古義』, “此章舊本連下文爲一章. 今詳文勢, 與上章同意, 而下文別起端, 故分爲別章. 使與前後諸章, 各以類相從, 而不相混云.”

50) 이토 진사이는 “본문 ‘옛날에 증자가’에서부터 ‘나는 가서 대적한다’까지는 (앞 구절의) ‘맹시사는

IV. 결론

본고는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경학의 한 방법으로 서 수사학적 경전 해석의 보편성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란 ‘문장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경문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어휘 배열, 문장 구조, 표현 기교 등을 주해한다’는 의미를 지향한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철학가나 문학가를 막론하고 유학자라면 경전을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았으며, 이토 진사이는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다.

이토 진사이는 『맹자』의 내용적 측면은 물론 문학적 측면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맹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의리’ 보다도 ‘문의’, 즉 경문에 담긴 문학적 요소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그의 문의 중심 경전 해석은 『맹자고의』에서 수사학적 주석으로 발현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살핀 주희의 『맹자집주』나 이황의 『맹자석의』 등에서도 보이는 특징인 바,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 갖는 보편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토 진사이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은 그의 경학관이 갖는 특징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맹자』의 수사법을 『논어』의 수사법과 연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경문의 문세를 근거로 주희 등 다른 경학가들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어맥을 통해 ‘古義[공맹의 본의]’를 밝혀야 한다는 저술 목적 또한 그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에 반영되었다. 어법이나 어세보다도 ‘어의’를 많이 언급하였으며, 표현 기교나 문장 구조가 주는 심미적 감상평이 드물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일본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에서 이토 진사이의 『맹자고의』는 기초 성격을 띤다. 맹자가 사용한 요약법이나 비유법 등을 강조하며 설명하였지만, 팔진법이나 정보대기법 등 고차원의 수사법을 논하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토 진사이의 수사학적 『맹자』 해석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의 경전 해석은 후대 일본 경학가들의 문의 중심 경전 읽기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고, 그 결과 히로세 탄소의 『독맹자』 등과 같이 수사학적 접근이 전문화된 형태의 주석서가 등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

증자를 닮았고라는 문장 앞에 놓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순조롭고 의미가 분명해진다.『昔者』以下至『吾往矣』, 當在『孟施舍似會子』之上. 若此, 則文順而意明矣.』라고 하였다.(『孟子古義』)

전근대 학술장은 문사철이라는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하지만 국내 기존 연구는 경전과 문학을 연계한 영역에 관심이 부족하여, 양자 간의 접맥 또는 융합의 형태인 수사학적 경전 해석은 소홀하게 논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이토 진사이의 『맹자』에 대한 수사학적 접근은 전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수사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阮元 校刻, 『論語註疏』, 『十三經註疏』, 北京: 中華書局, 2009
- 劉勰, 『文心雕龍』, 上海: 商務印書館, 1930
- 朱熹, 『四書章句集註』, 北京: 中華書局, 1983
- _____, 『朱子語類』, 北京: 中華書局, 1986
- 黃宗羲, 『宋元學案』, 北京: 中華書局, 1986
- 藤原惺窩, 『惺窩先生文集』
- 伊藤仁齋, 『孟子古義』
- _____, 『童子問』
- _____, 『仁齋日札』
- _____, 『古學先生文集』
- 이기문, 『동아 새국어 사전』, 두산동아, 1995
- 이노구치 아즈시 著 · 심경호 譯, 『日本漢文學史』, 소명출판, 2000
- 이토 진사이 著 · 최경열 譯, 『孟子古義』, 그린비, 2016
- 蘭翠, 『唐代孟子學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 蔣伯潛 · 蔣祖怡, 『經典經學』, 北京: 九州出版社, 2011
- 김월희, 「말 담기와 뜻 세우기[修辭立其誠]: 고대 중국인의 수사 담론과 그 저변」, 『한국수사학회 월례학술발표회』, 한국수사학회, 2005
- 김현, 「레토리케(Rhêtorikê)는 ‘수사학’(修辭學)인가?」,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한국수사학회, 2004
-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021
- _____, 「한중일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맹자』 주석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9
- 원용준, 「이토 진사이의 맹자관에 대한 일고찰」, 『동양철학연구』 61, 동양철학연구회, 2010
- 이기동, 「일본 유학의 기본 성격」, 『유학사상연구』 8, 한국유교학회, 1996
- 정우봉, 「한국 수사학사에 있어 수사 담론과 그 맥락」, 『민족문화연구』 4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함영대, 「星湖學派의 盡心 · 知性 · 事天에 대한 해석-『孟子』 「盡心」 上 1章의 해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33, 한국동양철학회, 2010
- 張伯偉, 「東亞視野下的經學與文學: 以『孟子』在中韓歷史上的影響爲中心」,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2017

井上哲次郎 著・王起 譯, 『日本古學派之哲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You, Min Jung, 「New Trends in Commentaries on the Confucian Classics—Characteristics, Differences, and Significance of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of the Mengzi」, 『ACTA KOREANA』 21.2, CrossRef, 2018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https://dl.ndl.go.jp>)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Itō Jinsai's Rhetorically Oriented Exegesis — Centering on the *Mōshi kogi*

You, Min-ju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niversality and speciality of the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centering on Itō Jinsai 伊藤仁齋's the *Mōshi kogi* 孟子古義.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aim to interpret the Classics based on the textual features such as lexis, sentence structure, literary embellishment, and etc. Also, regardless of philosopher or literary figure, Confucian scholars regarded the Classics a writing model. The *Mōshi kogi* shows that Itō Jinsai had these two perspectives.

Itō Jinsai's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on the *Mencius* also implies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ought on the study of the Classics. He explained the rhetoric of *Mencius* in relation to the rhetoric of *Analects*, and presented different views from orthodox scholars such as Zhu Xi based on the original text. In addition, his rhetorical interpretation also reflected his purpose of writing a commentary that "the original intention of Confucius" should be revealed through textual features: in details, the author's intention or thought was mentioned more than grammar or the mood of the text.

Among the Japanese rhetorical interpretations of the Classics, Itō Jinsai's the *Mōshi kogi* is a stepping stone. Although he emphasized and explained the summary method or metaphor used by Mencius, it is rarely discussed high-dimensional rhetoric such as the parentheses method or the information waiting method. However, the rhetorical interpretation of the *Mencius* made by Itō Jinsai is meaningful in itself. His interpretation contributed to the reading of the Classics of later Japanese scholars, and as a result, it served as a priming water for the emergence of the rhetoric-centered commentaries such as *Doku Mōshi* written by Hirose Tansō in the late Edo period.

Key Words : Itō Jinsai, *Mōshi kogi*, Rhetorically Oriented Exegeses, "all writings are originated from and based on the Classics (*wenbenyujing* 文本于經)"

